



석탈해 신화의 연구

저자 김화경
(Authors)

출처 [어문학](#) , 2000.2, 205-227(23 pages)
(Sourc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2000.2, 205-227(23 pages)

발행처 [한국어문학회](#)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248>

APA Style 김화경 (2000). 석탈해 신화의 연구. 어문학, 205-227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6/18 11:0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석탈해 신화의 연구

김 화 경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문화적 성격과 그 도래 경로 |
| 2. 석탈해의 출자 | 4.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는 석탈해 신화를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그 계통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난생 신화의 남방 기원설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석탈해 신화에 나오는 “왜국의 동북 1천리에 있는 다파나국(용성국)”의 위치에 해당되는 동북 시베리아 일대에 구전되는 난생 신화를 근거로 하여 이 신화의 계통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신화는 그 일대에서 니만 한류와 북서 계절풍에 편승하여 한국의 동해안 지역으로 들어오는 어로 문화와 함께 도래하였고, 이렇게 남하한 어로 집단이 남긴 암각화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석탈해 집단이 신라에 들어와서 왕권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추정을 하였다.

1.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 난생 신화(卵生神話)의 남방 기원설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의 고대 건국 신화(建國神話)와 왕권 신화(王權神話)들 가운데에서 난생 신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고주몽 신화와 박혁거세 신화, 수로왕 신화, 석탈해 신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난생 신화들이 남방으로부터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 본 논문은 1998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하는 추정¹⁾은 전적으로 三品彰英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한국 난생 신화의 남방 기원설은 일제(日帝)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에 분할 통치(divide and rule)라는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응집력이 강한, 한국 문화의 속성을 해체시키고 지역간·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²⁾

그리고 그들은 이것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일제 어용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모든 조사와 연구는 이 지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³⁾ 그 때문에 그들은 한국 문화의 많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가 三品彰英의 문화권역설(文化圈域說)에 입각한 한국 기층 문화의 2원적 성격론(二元的性格論)이다. 그는 우선 한국 민족의 근간을 남 통구스계인 북쪽의 예맥족(濊貊族)과 남쪽의 한족(韓族)으로 양분하였다.⁴⁾ 그런 다음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한국의 북부 지방에 북방 대륙 계통의 수조 신화(獸祖神話) 및 감응 신화(感應神話)가 분포되어 있고, 남부 지방에 남방 해양 계통의 난생 신화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⁵⁾ 이와 같은 그의 연구는 한국 민족이 초기 단계부터 확연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이질적인 종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三品彰英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국 민족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경역(境域) 내에서 이 난생 모티브의 신화를 가지고 들어온 집단의 문화적 성격과 그 역할이 동시에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
- 1) 김재봉 : 1971, pp. 39~53.
 천관우 편 : 1975, pp. 146~150.
 - 2) 姜東鎮 : 1979, pp. 395~419.
 - 3) 박현수 : 1993, pp. 45~95.
 - 4) 三品彰英 : 1972, pp. 213~214.
 - 5) 三品彰英 : 1971, pp. 310~537.

경우에는 난생 신화들이 지배 계층의 시조 신화(始祖神話)로 정착되었다. 지배 계층으로 군림한 집단은 피지배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적 흔적이 어디에든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민속 현상들⁶⁾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남방 문화적인 요소의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도 독립된 지 반 세기가 지난 현금까지 한국의 기층 문화를 2원적인 처지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연구 태도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三品彰英의 연구 성과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하는 데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⁷⁾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구 성과를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그 허구성을 증명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필자는 이미 「고구려 건국신화의 연구」란 논문을 통해서 三品彰英이 제기한, 한국 난생 신화의 남방 기원설이 가지는 부당성의 일단을 적시한 바 있다.⁸⁾ 이번에는 이것을 한층 더 천착하는 의미에서 석탈해 신화의 계통을 재구하기로 한다. 이 신화를 선택한 이유는 고주몽 신화와 박혁거세 신화, 수로왕 신화에서는 알의 출처가 하늘과 연계되어 있어, 그 출처(出自)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석탈해 신화에서는 이 자료가 전해지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다 같이 그가 태어난 곳이 “왜국(倭國)의 동북 1천리에 있는 다파나국(용성국)”이라고 하여 석탈해 집단이 출발한 곳을 명기하고 있어, 그 계통의 재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6) 남방 문화적인 요소로 출다리기와 금줄, 동신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천관우 편 : 1975, pp. 146~150). 그리고 도작 문화(稻作文化)도 남방 문화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양자강(揚子江) 이남을 원산지로 보는 Japonica의 탄화미(炭化米)가 북한에서도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도작 문화가 반드시 남방의 해양 문화와 함께 한국에 전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7) 이런 문제점들 가운데에는 한국 샤머니즘은 남·북이 제각기 그 기원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최길성 : 1978, pp. 21~22)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민족 그 자체를 남과 북으로 2원화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김화경 : 1998, pp. 37~39.

그러나 석탈해 신화의 계통에 관해서는 三品彰英의 남방 기원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열규⁹⁾와 천관우¹⁰⁾, 조동일¹¹⁾ 등의 북방 유입설이 있고, 또 나경수의 동도설(東渡說)¹²⁾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신화의 기록을 무시하고 신화 외적인 요소에서 석탈해의 출자를 추출하려고 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신화에 기록된 그의 출자를 중시하여, 석탈해 집단이 동북 시베리아 일대에서 어로 문화(漁撈文化)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구명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한국 난생 신화의 남방 기원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북방의 어로 문화(漁撈文化)가 한국의 기층 문화 성립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힘으로써 민족 문화의 원류를 상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석탈해의 출자

석탈해는 신라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다. 이것은 그가 속한 집단이 그보다 앞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집단보다 선진적인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부터 어떤 문화를 가지고 도래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한국 기층 문화의 형성 과정을 재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배 계층의 선진적인 문화는 피지배 계층의 문화가 성립되고 발전되는 데에 어떠한 형태로

9) 김열규 : 1977, p. 51.

10) 천관우 : 1976, p. 26.

11) 조동일 : 1982, p. 77.

12) 나경수 : 1995, p. 134.

그러나 나경수의 동도설이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서연왕 신화가 중국의 동쪽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에 동도설이라고 명명한 듯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석탈해 신화라면 이 신화를 중심으로 유입 방향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서도설(西渡說)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 곧 난생 설화와 야장 설화가 다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경우지로서 중국의 중부 헤안 지방을 상정한 연구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둔다.

강인구 : 1984, pp. 307~309.

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석탈해 집단이 갖고 들어온 문화는 민족 문화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석탈해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하는 출처(出自)의 문제부터 규명하기로 하겠다. 석탈해 신화는 『삼국사기』권1 신라 본기 탈해 이사금(尼師今)조와 『삼국유사』권1 기이편(紀異編) 탈해왕조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두 자료는 줄거리의 전개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자료 1]

「(1) 남해왕 때-옛 책에 임인년에 왔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가까운 일이라면 노래왕의 즉위 초년보다 뒤의 일인데 (그 때는) 양위를 다룬 적이 없었고, 먼저 일이라면 혁거세왕 때의 일이므로 임인년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에 가락국의 바다에 배가 와서 닿았다. 그 나라의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복을 치고 떠들면서 맞아들여 머물러 두고자 했다. 그러나 배는 빨리 달아나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지금도 하서지란 촌 이름이 있다.-에 이르렀다.

(2) ㉠그 때 갯가에 한 늙은 할멈이 있어 이름을 아진의선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혁거세왕 때에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배를 바라보고 “이 바다 가운데에는 원래 바위가 없는데 어찌된 까닭으로 까치가 모여들어 울꼬?”라고 하면서, 배를 끌어당겨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고 그 배 안에는 제가 하나 있었다. 길이가 20자나 되고 넓이가 13자나 되었다. 그 배를 끌어다가 어떤 나무 숲 아래에 두고 훔찬 것인가 길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여 하늘을 향해 맹세를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제를 열어 보니 단정한 사내아이가 들어 있고, 아울러서 일곱 가지의 보물과 노비 등이 그 속에 가득 실려 있어, 그들을 7일 동안이나 대접하였다.

(3) 이에 사내아이는 “나는 본래 용성국-또는 정명국 혹은 완하국이라고도 하는데, 완하는 혹은 화안국이라고도 한다. ㉡용성은 왜국의 동북 1천 리에 있다.-사람이오. 우리 나라에는 일찍이 28용왕이 있었소. 모두 사람의 태에서 났으며, 5·6세 때부터 왕위에 올라 만민을 가르쳐 성명을 바르게 했소. 팔뚝의 성골이 있었으나 선택하는 일이 없이 모두 왕위에 올랐소. 그때 우리 부왕 함달과가 적녀국의 왕녀를 맞아서 왕비로 삼았는데,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기도하여 아들을 구했더니, 7년 후에 알 한 개를 낳았소. 이에 대왕이 여러 신하를 모아 물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니 아마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케를 만들어 나를 그 속에 넣고, 일곱 가지 보물과 종들까지 배 안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㉞ '인연이 있는 곳에 네 마음대로 닿아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만들라.'고 축원했소. 문득 적룡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여 이곳으로 왔소."라고 하였다.

(4) 말을 마치자, 그 사내아이는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 위에 올라가 들무덤을 만들고 7일 동안을 머물면서 성안에 살 만한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마치 초생달처럼 생긴 산봉우리 하나가 보이는데, 가히 오래도록 살 만하였다. 이에 내려가 알아보았더니 곧 호공의 집이었다. ㉞ (그는) 곧 띠를 써서 남몰래 그 집 옆에 솥들과 솥을 묻고는 이튿날 아침에 그 문 앞에 가서, "이곳은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호공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시비를 따지다가 결판을 못 내고, 필경은 관가에 고발을 하였다. 관리가 말하기를 "무슨 증거로 이것을 너의 집이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 아이가 "우리조상은 본래 대장장이인데 잠시 이웃 지방으로 나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여기에 살았습니다. 땅을 파서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땅을 파) 보았더니, 과연 솥들과 솥이 나왔다. 이리하여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¹³⁾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13) 「南解王時 古本云壬寅年至者譯矣 近則後於勞羅即位之初 無爭讓之事 前則在於赫居之世 故知壬寅非也 魏洛國海中有船來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譟而迎 將欲留之 而虹乃飛走 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 今有上西知 下西知村名 時浦邊有一壩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 望之請曰 此海中元無石齒何因鵲巢而鳴 擊虹尋之 鵲集一虹上 虹中有一櫃子 長二十尺 廣十三尺 曳其船 置於一樹林下 而未知凶乎吉乎 向天而誓爾 俄而乃開見 有端正男子 并七寶奴婢滿載其中 供給七日 遇言曰 我本龍城國人 亦云正明國 或云玩夏國 玩夏或作花夏國 龍城在後東北一千里 我國嘗有二十八龍王 從人胎而生 自五歲六歲繼登王位 教萬民修正性命 而有八品性骨 然無擇擇 皆登大位 時我父王舍達婆 婚積女國王女爲妃 久無子 風禪祀求息 七年後產一大卵 於時大王會問群臣 人而生卵 古今未有 殆非吉祥 乃造櫃置我 并七寶奴婢載於虹中 浮海而祝曰 任到有緣之地 立國成家 便有赤龍 護虹而至此矣 言訖 其童子曳車率二奴 登吐舍山 作石塚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即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汝家 童曰 我本冶匠作出隣鄉而人取居之 請掘地檢看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焉。」

최남선 편 : 1946, p. 47.

이상과 같은 석탈해 신화는 밑줄을 그은 ㉔의 내용으로 보아, 이것이 원래는 부족 국가의 성립에 연루되어 전승되던 이야기였던 것이, 신라가 부족 연맹의 형태로 통합되면서 그 건국 신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신화에 대해 三品彰英은 “신라의 탈해왕 신화는 불교 설화가 민족 고유의 난생 관념에 이끌리어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물론 불교 설화에서의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택할 소지로서 이미 민족적인 시조 난생 관념이 선재(先在)하였던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시조 신화를, 불교 설화를 차용하여 자연스럽게 성장시켰던 것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¹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지적하고 있는 불교 설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다.

[자료 2]

「왕비(般遮羅國의 왕비)가 오 백 개의 알을 낳고 부끄러워하면서 (이것이) 재변(災變)이 될까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조그마한 함에 넣어 殞伽河에 버렸더니 강을 따라 떠내려갔다. 이웃 나라의 왕이 있다가 (그) 강물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였더니, (그가) 알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서 열어본즉, 제각기 한 아이가 나왔는데 자라나면서 대단히 용감하여 가는 곳마다 모두 복종하였다.»¹⁵⁾

이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석탈해 신화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三品彰英이 석탈해 신화가 불교 설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한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가 선재했다고 주장하는 민족적인 시조 난생 관념의 형성에 관한 추론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52개의 자료들을 가지고 하강형(下降型)과 조란형(鳥卵型), 화생형(化生型), 인태적 출산형(人態的 出產型)으로 4분한 다음에, 고주몽 신화와 석탈해 신화가 귀속되는 인태

14) 三品彰英 : 1971, p. 381.

15) 三品彰英 : 1971, pp. 339~340에서 재인용.

적 출신형의 난생신화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태적 출신형의 난생 신화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즉 그것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방면과 중국 대륙과의 접촉 경역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본포적 특징과, 한편으로는 이것이 적지 않게 진보된 신화적 관념을 지닌 채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적 특징의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강하·조란·화생의 세 유형들과의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조 난생신화가 중국 대륙의 내부에는 하나도 없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본포적 특징(주로 남방의 자료들을 소개한 것을 가리킴: 인용자 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용적인 특징과 함께 이 종류의 신화의 요소와 구상이 인도네시아계와 대륙계의 접촉과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인도네시아적인 요소이다. 더구나 그 속에 진보된 구상에 있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인도네시아적 요소 자체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별개의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륙계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은 없을 것이다.»¹⁴⁾

한국 난생신화의 남방 기원설을 주창하기 위한, 三品彰英의 이와 같은 추론은 남부 지방의 한족(韓族)이 남방의 해양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민족이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의 가설은 첫째 자료 1에서 밑줄 친 ㉠의 내용을 무시하였고,¹⁵⁾

14) 三品彰英: 1971, p. 381.

15) 三品彰英: 1971, pp. 339~340에서 재인용.

16) 三品彰英: 1971, pp. 369~370.

17) 三品彰英은 처음에는 “왜국의 동북 1천리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동해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용성국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그는 『삼국사기』에 실린 석탈해 신화의 자료를 고찰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였음: 인용자 주), 일찍이 28용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동해 용왕국이라고 하는 신화적 관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삼국사기)』에서는 『유(삼국유사)』의 용성국이 다파나국으로 바뀌어 있다. 다파나국의 이름은 『위지(魏志)』세종기(世宗紀) 영평(永平) 원년 3월 기해조에 서역의 우전(于)과 함께 보인다. 아마 서역의 한 소국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다파나국은 지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용성국의 함달파왕이 서역의 악신(樂神) 건달파(乾達婆) 신앙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경에 의한 문화 전파의 경로에서 말한다면, 용

둘째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조사한 남방 지방의 자료들만을 이용하였으며, 셋째 일제의 분할 통치라는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 미리 설정한 틀, 곧 한국의 남쪽과 북쪽을 문화적·민족적으로 구별하겠다는 저의에서 연구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석탈해의 출자를 구명함에 있어서는 자료 1의 ㉠부분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석탈해 신화가 전해지는 『삼국유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삼국사기』에도 “탈해는 본래 다과나국의 출생인데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 1천리에 있다.”¹⁸⁾고 되어 있다. 정사(正史)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신화적인 허구가 아니고, 어떤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 왜국¹⁹⁾의 동북이란 것은 방위를 가리키고, 1천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리가 아니라 아주 먼 거리를 나타낸다²⁰⁾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이곳은 Kamchatka 반도가 있는 동북 시베리아 일대에 해당된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고아시아족(Paleo-Asiatics) 계통의 Koryak족이 난생신화를 가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먼저 이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국과 다과나국과의 일치를 인정하여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여, 지역 지방으로 보았다.

三品彰英 : 1971, p. 328.

三品彰英 : 1973, pp. 490~491.

18) 「脫解 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김부식 : 1982, p. 6.

19) 왜(倭)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신라 본기에 등장하는 왜를 오늘날의 일본열도라고 상정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남해안과 일본의 큐우슈(九州) 일대로 보려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학계간의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 한글학회 : 1992, p. 4058.

[자료 3]

「Quikinna'qu(까마귀의 일종)는 버드나무 껍질을 모으기 위해 나가고, 그의 아내 Miti는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느라고 바빴다. Quikinna'qu가 없는 사이에 Vak'thimtilan(까치 사람)이 개집에 와서 강아지들과 함께 먹이를 먹었다. 그러면서 (그는) Miti의 얼굴을 귀엽다는 듯이 부리로 콧코를 찌어왔다.

Quikinna'qu는 집에 돌아와서, 즉시 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개집의 뒤편하게 튀어나온 곳에 스쳐서 벗겨졌다고 하자, Quikinna'qu는 튀어나온 곳을 모두 잘라냈다. 이튿날 Quikinna'qu가 다시 버드나무 껍질을 구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Vak'thimtilan가 다시 찾아왔다. 이 때 Miti는 Vak'thimtilan을 집으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사(情事)를 시작했다. 하지만 Quikinna'qu가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중단하였다. Quikinna'qu는 바깥에서 버드나무 껍질을 가지러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Miti는 나무 껍질을 밟는데 바쁘다고 외쳤다. Quikinna'qu가 다시 한번 외치자, 이번에는 튼튼한 껍질 끈을 사용하여 버드나무 껍질을 집 안으로 끌어들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Quikinna'qu는 집안에 들어가 불을 지폈다. 그러고는 굴뚝을 막아서, 연기가 침실로 가득 들어가게 하였다. Vak'thimtilan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침실에서 나와 겨우 도망을 쳤다. 그러나 Miti는 Vak'thimtilan의 아이를 배었다. 이윽고 Miti가 두 개의 알을 낳았는데, 거기에서 인간과 같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모두가 잡아온 물고기들을 저장하려고 바쁘게 일하는 사이에 쌍둥이 중의 한 아이가 Miti에게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렸다. Quikinna'qu가 쌍둥이들에게 제각기 연어의 훈제(薰製)를 통째로 주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Quikinna'qu는 “저들은 까치의 도둑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의 놀라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단지 울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Miti는 그들을 초지(草池) 여행용 가방에 넣어 Vak'thimtilan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Miti는 그들을 마루에 집어던지고는 아이들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하였다.

Quikinna'qu는 외로워지면 Miti를 찾아가서 음식을 얻어먹고는 집으로 돌아갔다.²¹⁾

21) J. Michael : 1993, pp.9~10.

이 자료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후원 아래, 스웨덴의 민족학자 J. Waldemar 가 1900년 Jesup. 북태평양 조사시에 Kamchatka 반도의 Kamenskoy라는 해변 마을에서 조사한 것으로, 이야기의 후반부가 상당한 혼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점도 결여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J. Michael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신화는 동물이나 새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샤머니즘 사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위의 자료는 석탈해 신화와 유사한 모티브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두 신화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개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서 다파나국이나 용성국이 있다고 가리키는 이 지역 일대에 난생 신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료에서 알을 낳는 Miti에게 임신을 시키는 주체가 까치(magpie)라는 점이다.

첫 번째 단서는 난생 신화가 남방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란 것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북방의 시베리아 지역에도 난생 신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조란형(鳥卵型)의 자료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일대에 그들 고유의 난생 관념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베리아 동북부 지방에 Yakut 자치 공화국을 이루고 사는 Yakut족이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료도 아울러 고찰하기로 한다.

[자료 4]

「솔게미는 샤먼(shaman)으로 될 숙명을 가진 한 아이의 혼을 집어먹은 후 여름철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인 남동(南東)으로 날아갔더니, 거기에 해가 붉은 초목이 우거진 백화(白樺)와 낙엽송이 솟아나 있었다. 이 두 나무 중 하나에 솔게미는 알을 낳아서 까고, 그 유아를 나무 밑 풀밭에 놓아서 육류(畜類)에게 양육을 맡겼다.²²⁾

22) G. Nioradze, 이홍직 역 : 1976, p. 16.

이 자료는 Yakut인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샤먼의 기원 신화인데, 그들은 가장 위대한 샤먼을 술개미가 보낸 것으로 믿고 있다.²³⁾ 시베리아 일대에 사는 제 종족들의 샤먼은 그들의 실질적·정신적 지도자라는 점²⁴⁾을 감안하면, Yakut인들이 이런 난생 신화를 가졌다는 것은 사제자(司祭者) 내지는 지배자들이 비정상적인 난생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관념이 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Yakut족은 바이칼 호수 부근에 살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이렇게 이동을 한 그들이 자료 4와 같은 신화를 가졌다는 것은 Yakut족이 원래부터 난생 신화를 가졌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선주하고 있던 고아시아족들과의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서 난생 신화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단을 가능하게 한다. 어느 경우이든 이것은 동북 시베리아 지방에 난생 신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음으로 Miti에게 임신을 시킨 주체가 까치라는 것은 자료 3과 석탈해 신화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알다시피 『삼국유사』에는 그가 석씨라는 성을 갖게 된 까닭을 “까치 때문에 꾀작을 열었으므로 (까치 작(鵲)에서) 새 조(鳥)를 떼어버리고 석(昔)씨로 하였다.”²⁶⁾고 적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이 아이는 성을 알 수 없으나 처음에 꾀가 떼 올 때에 까치 한 마리가 울면서 날아 따라 왔으니 까치 작(鵲)자를 약하여 옛 석(昔)자로 성씨를 삼았다.”²⁷⁾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료 3에서 찾을 수 있는 애니미즘(Animism)적 사유가 문화가 발달된 신라 사회에 들어와 합리적인 사유로 바뀌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23) G.Nioradze, 이홍직 역 : 1976, p. 16.

24) H.Mihaly, 村井 翊 譯 : 1998, p. 22.

25) 加藤九祚 : 1986, pp. 105~106.

26) 「因鵲開櫃 故去鳥字 姓昔氏。」

최남선 편 : 1946, p. 47.

27) 「此兒不知姓氏 初續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김부식 : 1982, p. 7.

이런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석탈해 집단은 동북 시베리아 일대²⁸⁾로부터 한국의 동해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자료1의 ㉠에서 말하는 외국의 동북 1천리에 있다고 하는 용성국은 Kamchatka 반도가 있는 동북 시베리아 일대에 해당된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Koryak족이 어머니즘적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신화에 등장하는 까치가 석탈해 신화와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석탈해 집단은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남하하여 신라에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추단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난생 신화의 후대적인 변형으로 생각되는, 홍단종의 『순오지(旬五志)』에 실린 여용사(黎勇士) 전설은 이들 두 지역을 연계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별견(瞥見)하기로 한다.

[자료 5]

「예국(穢國)의 한 시골 노구(老嫗)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알(卵) 한 개가 물 위에 떠내려오는데 크기가 마치 박(瓠)만 하였다. 노구는 이상히 여겨 이것을 주워서 자기 집에 가져다 두었더니, 얼마 안 되어 그 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남자 하나가 나왔는데 얼굴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노구는 더욱 기특히 여겨 그 아이를 애지중지 잘 길렀다. 그 아이는 나이 7·8세가 되자 신장이 8척이나 되었고, 얼굴빛은 거무스름하여 마치 성인과 같았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얼굴빛이 검다 하여 검은 여(黎)자를 성으로 하고, 이름을 용사라고 불렀다.」³⁰⁾

28) 현재 Kamchatka 반도에 사는 Koryak족이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동북 시베리아 일대라고 한 것은 Koryak족과 Gilyak족과 같은 고아시아족이 원래 만주와 연해주를 비롯한 이 지역 일대에 살다가 뒤에 들어온 투구스족이나 몽고계의 여러 종족들에 밀려서 Kamchatka 반도와 그 아래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이란 것을 밝혀둔다.

孫進巴, 임동석 역 : 1992, p. 424.

29) 자료 1의 단락(1)에는 석탈해가 가락국에 들렀다고 되어 있어, 그의 집단이 남하했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원향(原鄉)이 동북 시베리아 일대라고 본다면, 한국의 동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것은 남하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30) 홍단종, 이민수 역 : 1971, p. 78.

이런 탄생담을 가진 여용사는 그 후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호랑이를 퇴치하고, 무게가 만 근(斤)이나 되는 큰 종을 옮겨 달아 조정으로부터 상객(上客)의 대우를 받는다.³¹⁾ 이와 같은 이야기의 줄거리는 영웅담의 전형³²⁾을 보여주는 것으로, 석탈해 신화와 상통하는 데가 있다. 즉 알로서 들어와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과 그를 데려다 기르는 사람이 노구(老嫗)라는 점에서, 이들은 같은 계통의 비슷한 이야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예국이 있었던 지역에도 난생 모티브를 가진 설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앞에서의 추론, 곧 시베리아 동북부 일대로부터 한국의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난생 신화를 가진 집단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적 성격과 그 도래 경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탈해 집단이 동북 시베리아 일대로부터 경주 지방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진 집단이었으며, 또 그 흔적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구명되어야 한다.

현금의 한국학계에서는 석탈해 집단이 철기 문화와 관련을 가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주장은 김열규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 자료 1의 밑줄 친 ㉔의 내용과 <탈해>라는 이름의 발음이 북방 퉁구스족의 야장(冶匠) 내지는 야장무(冶匠巫)를 의미하는 <Tarxad> 또는 <Tarquan>과 친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흉노(匈奴)계의 철기 문화와 더불어 도래한 인물로 파악하였다.³³⁾ 이것을 한층 더 진척시킨 천관우는 “(석탈해는) 아마도 한강 일대 어디서인가 해로(海路)로 남하하여 처음에는 김해에 정착하려다가 다시 경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던 듯하다.”³⁴⁾라고 하여. 그의 남하 경로까지 재구하려고 하였다.

31) 홍만중, 이민수 역 : 1971, pp. 78~79.

32) L. Raglan : 1965, p. 145.

33) 김열규 : 1977, p. 51.

34) 천관우 : 1976, p. 26.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단은 단락 (3)의 신화적인 문맥의 내용을 무시하고, ㉔에서 석탈해가 자기의 조상이 대장장이였다고 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는 것은 그가 지략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Trickster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의 출자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견해는 수증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나경수는 석탈해 신화가 서연왕(徐偃王) 신화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이들을 비교하면서 그 계통을 재구한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석탈해라는 이름이 고유 명사가 아니고, 옛날(昔:진시황 때)에 그의 학정에 못 이겨 탈출하여 해방된 사람들(脫解)을 의미하는 것³⁵⁾으로 해석하면서, 후자를 가지고 있던 회이족(淮夷族)이 진시황(秦始皇)의 천하 통일로 야기된 혼란을 틈타 철기 문화와 함께 황해를 건너서 가야 지방을 거쳐 신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³⁶⁾

그렇지만 가야 지방의 철기 문화가 회이족³⁷⁾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한다면 이들 두 지역의 철기 문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비교·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탈해 집단이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졌다면 수로왕에게 패하여 신라로 갈 이유가 없었으며, 더욱이 신라 지역에 들어가 왕이 되어 지배 계층으로 군림하였다면 가야에 비해 신라의 철기 문화가 더욱 발전된 양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의 발굴 성과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나경수의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석탈해 집단이 가졌던 문화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는 자료 1에서 밑줄을 그은 ㉑과 ㉒ 부분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먼저 ㉑에서 석탈해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의 어머니(海尺之母)에게 발견된 것은 이들

35) 나경수 : 1995, pp. 148~149.

36) 나경수 : 1995, p. 159.

37) 三品彰英은 회이족과 예맥족(고구려도 여기에 넣음)이 근접하여 있었다고 하여 서연왕 신화가 고조동신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란 암시를 하면서도, 전자를 해양계(海洋系)의 자르로 보았다.

三品彰英 : 1971, pp. 345~346.

사이에 문화적인 동질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탈해가 처음에는 고기잡이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그 어머니를 공양하였는데 게을리 하는 기색이 없었다.”³⁸⁾고 적고 있어, 그가 어로(漁撈)를 주업으로 하던 집단의 일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³⁹⁾

또 ㉔에서 적룡(赤龍)의 호위를 받았다는 것도 이들이 용신 신앙(龍神信仰)을 가진 어로 집단이었음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석탈해가 죽어서 토함산의 동악신(東岳神)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료 1의 다음에 이어지는, 동악신(東岳神)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 얽힌 신화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6]

「왕위에 있는 지 23년인 건초 4년 기묘에 세상을 떠나, 소천의 언덕 가운데에 장사지냈다.

그 후에 신의 명령이 있기를 “내 뼈를 조심해서 물어라.”고 하였다. 그 두골(頭骨)의 둘레가 3자 2치나 되었고, 몸 뼈의 길이는 9자 7치나 되었다. 그리고 이는 영키어 뭉쳐서 하나가 된 듯하고, 골절은 모두 연이어 맺어져 있어서, 이른바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역사의 골격이었다. 뼈를 부수어 소상을 만들어 대궐 안에 안치했다. 신이 또 말하기를 “내 뼈를 동악에 안치하라.”고 하였으므로, 그 곳에 모시게 했다.”⁴⁰⁾

『삼국유사』에는 위에서 인용한 자료 이외에 또 하나의 이설(異說)을 실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자료는 석탈해가 동악신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동악신이 되었다는 것

38)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김부식 : 1982, p. 7.

39) 김철준도 탈해를 중심으로 하는 석씨 부족은 어로를 주요한 생활 수단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김철준 : 1975, p. 75.

40) 「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疏川丘中 後有神詔 愼埋葬我骨 其頭骨周三尺二寸 身骨長九尺七寸 齒疑如一 骨節皆連王瑣 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 碎爲塑像 安闕內 神又報云 我骨 置於東岳 故令安之。」

최남선 편 : 1946, p. 48.

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료의 이중성은 석탈해가 동악신으로 변했다는 믿음이 신라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또 그것에 관한 설화가 여러 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내용의 자료 6에 대해 三品彰英은 “우리들은 이들 소전(所傳)에서 본래부터 탈해는 해상에서 온 신령이었으며, 또 토함산의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탈해 전설 속에도 ‘그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 위에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어 7일 동안 머물렀다(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舍山 作石塚 留七日).’라는 기록이 있고, 또 신라 본기에도 ‘왕이 토함산에 오르니 검은 구름이 우산과 같이 피어서 왕의 머리 위에 퍼져 있다가 오랜 뒤에 흩어졌다(王登吐舍山 有玄雲如蓋 浮王頭上 良久而散).’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원래부터 탈해가 토함의 악신(岳神)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돌이켜 보면, 토함산은 왕성의 동남쪽에 우뚝 솟아 있고, 동해에 면한 이 지방의 고봉(高峰)이며, 동해 용신이 살기에는 적당한 영산(靈山)이다. 해룡계의 신인(神人)이 산악의 신이라고 하면 일견 부자연스러운 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지만, 일본 海宮遊幸의 히코호호데미노미코도도 원래는 아마사찌히코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용은 바다에도 산에도 있는 영적 존재이다.”⁴¹⁾라고 하여, 석탈해가 해신적·산신적 성격을 구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大林太良도 三品彰英과 마찬가지로 “탈해의 경우에는 그 한 몸이 바다와 육지의 양 원리—바다가 주(主)고, 육지가 종(從)이지만—을 나타내고 있다.”⁴²⁾고 하여,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용신의 경우는 그것이 있는 장소에 의해 그 성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해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한국의 농촌에서 신봉되는 용신 신앙은 농경신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어촌에서 신봉되는 용신 신앙은 수신의 성격

41) 三品彰英 : 1972, p. 274.

42) 大林太良 : 1975, p. 64.

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민속 신앙을 고려한다면 동해에 면해 있는 토함산의 동악신은 바다를 지켜주는, 그러면서도 어촌의 생업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수신적인 성격이 짙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삼국유사』왕력편(王曆編)에 “왕이 죽자 미소 소정의 구렁 속에 수장하였다가, 삿로 소상을 만들어 동악에 안치하니 지금의 동악 대왕이다.”⁴³⁾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삼국 시대의 경우 수장(水葬)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기록은 석탈해 집단의 수신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석탈해 집단이 떠난 곳의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용성국이란 이름이 있는 것도 해명이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죽어서 용신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용신 신앙에 철지했던, 석탈해 집단은 이러한 신앙의 반영으로 용성국이라는 신화적 관념의 이름을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신 신앙을 믿으면서 어로를 주업으로 하던, 석탈해 집단의 이주 경로는 당연히 해로(海路)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어로 문화를 가진 집단은 계절풍과 해류(海流)를 이용한 항해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그런데 그 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으로는 북서풍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내려오는 해류로는 니만 한류라는 것이 있다. 이 해류는 베링 해협에서 시작되는 오야시오 한류(親潮寒流)가 갈라져 한국의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들이 이 한류를 이용하여 동해안 연안을 따라서 이 지역으로 진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여기에서 동북 시베리아 일대로부터 니만 한류와 북서 계절풍에 편승하여 동해안 지역으로 들어온 주민의 이주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5에서 본 것처럼 옛날의 예국 지방으로 도래한 집단도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이주는 장기

43) 「王崩 水葬未召疏井丘中 塑骨安東岳 今東岳大王。」

최남선 편 : 1946, p. 4.

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부단히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세력을 가졌던 석탈해 집단의 이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들 어로 문화 집단이 남긴 문화의 유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화 유적으로 동해안 일대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암각화(岩刻畵)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일대에서는 중요한 곳만 들어도 무려 14곳에서 암각화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⁴⁴⁾ 울산시 대곡리에서 암각화를 최초로 발견하여 조사·연구한 황수영과 문명대는 『반구대(盤龜臺) 암각 조각』이란 연구 보고서에서 이곳의 암각화를 스칸디나비아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있는 무늬 토기들의 분포·교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청동기의 교류와 관련을 시켜서 우리 민족의 기원 문제를 추구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⁴⁵⁾

이 대곡리 암각화에는 고래와 물개, 거북 등 바닷짐승이 7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래가 48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래의 생태는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지내다가 겨울에는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한반도의 남쪽에서 생식(生殖)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⁴⁶⁾ 이곳의 암각화 유적이 동북 시베리아 일대의 어로 문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대곡리와 천전리, 벽연리 암각화에는 배가 새겨져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천전리의 암각화에 나오는 배는 꼬리와 머리를 위로 치솟아 올린 용선(龍船)으로서 거대한 돛을 달고 있어, 외양 범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⁴⁷⁾도 동북 시베리아의 어로 문화 집단이 한국의 동해안 일대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료 1의 밑줄 친 ㉠에서 적룡(赤龍)이 나타나서 석탈해가 탄 배를 호위하여 주었다는 것 역시 이러한 암각화의 그림과 관련을 시키면 쉽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4) 임세권 : 1994, p. 18 「암각화의 분포 현황 지도」참조.

45) 임장혁 : 1991, p. 174에서 재인용.

46) 木村秀雄 : 1974, p. 115.

47) 장명수 : 1996, p. 223.

그리고 대곡리 암각화에는 2개의 탈의 모습도 새겨져 있다. 입장혁이 시베리아의 수렵민(동물들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도 잡는 어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 인용자 주)들 중에는 고래나 바다표범을 잡았을 때에 여러 가지 바다 동물을 나타내는 가면을 쓰고 춤을 추기도 한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이것을 해석한 것⁴⁸⁾은 이들의 상관 관계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에는 암각의 대상으로 주로 인물과 배, 농경 광경, 전투 광경, 수렵 광경, 어로 광경, 수렵 대상 동물, 물고기, 새 등이 묘사되는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난다⁴⁹⁾고 한다. 실제로 장명수는 한국 암각화의 제작 단계별 편년의 설정에서 대곡리와 천전리의 암각화를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로 잡고 있다.⁵⁰⁾ 따라서 석탈해 신화를 이런 암각화 문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 신화는 동북 시베리아 일대로부터 들어오는 어로 문화 집단들 가운데에서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탈해 집단이 신라에 들어와서 왕권을 장악하였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보아도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거듭 말하지만 남방 문화가 구로시오 난류(黑潮暖流)를 타고 올라오듯이, 북방 문화의 일부는 오야시오 한류에서 갈라지는 니만 한류와 북서 계절풍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동해 연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유입되어 한국의 동해안 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유입 양상이 석탈해 신화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형성 과정을 재구하는 작업에서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4.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에서 분할 통치라는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시행

48) 입장혁 : 1991, pp. 186~187.

49) 황용훈 : 1987, p. 22.

50) 장명수 : 1996, p. 193.

하였고, 일제의 어용학자들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려는 정략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략적 연구의 하나가 三品彰英이 제시한 한국 난생 신화의 남방 기원설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의 신화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한 검토와 치밀한 분석 작업을 시도하기는커녕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여 왔다. 그리하여 난생 신화라고 하면 으레 남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자세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三品彰英이 제기한 한국 난생 신화의 남방 기원설이 가지는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래서 석탈해 신화를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이 신화의 계통을 추적함으로써 그의 출자를 밝히고 또 그가 속한 집단이 가졌던 문화적 성격과 그들의 도래 경로를 구명하려고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석탈해 신화는 Kamchatka 반도 일대의 동북 시베리아 지방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추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가 출발한 곳이 왜국의 동북 1천리에 있는 다파나국(용성국)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신화적 사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일대에 난생 신화들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추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민족지(民族誌) 자료가 그렇게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은 탓에, 난생 신화의 구전 자료로 Koryak족과 Yakut족의 이야기를 찾는 데 그쳤고, 또 이들 두 지역을 연계하는 중간 지점의 문헌 자료로 예국의 여용사 전설을 찾는 데 머물렀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보원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난생 신화를 가지고 들어온 석탈해 집단은 어로 문화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삼국사기』에 그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삼국유사』에 그가 사후에 용신으로 신봉되었다는 기록 및 그의 시체가 수장되었다가 소상으로 만들어져 동악에 안치되었다는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용신 신앙을 가졌던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원향(原鄉)을 용성국이라는 신화적 관념의 나라로 미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석탈해 집단은 오야시오 한류에서 갈라지는 니만 한류와 북서 계절풍에 편승하여 남하하는 문화의 도래 경로로 한국의 동해안을 거쳐 경주 지방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단을 내렸다. 이러한 문화의 도래 경로에 대한 재구는 동북 시베리아에서 한국의 동해안을 지나 남해안 일부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는 암각화에 대한 연구 성과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특히 반구대의 고래 암각화와 천전리의 용선 암각화는 이 지역 일대로부터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으로 들어오는 문화의 유입 경로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암각화가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석탈해 집단이 어로 문화와 함께 선진적인 청동기 문화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정을 하였다. 여기에서 이 경로를 통한 문화의 도래가 석탈해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부단히 계속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아울러 적시해둔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자료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고고학이나 국사학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한층 더 천착된 연구로 발전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첨언해둔다.

참고문헌

- 강인구 : 1984, 「신라왕릉의 재검토(2) - 탈해왕릉 -」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대전, 통 천문화사)
- 김부식 : 1982, 『삼국사기』 (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 김열규 : 1977,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서울, 일조각).
- 김재봉 : 1971, 「난생신화의 분포권」 『문화인류학(4)』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철준 :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김화경 : 1983, 「온조신화 연구」 『인문연구(4)』 (경산,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화경 : 1998, 「고구려 건국신화의 연구」 『진단학보(86)』 (서울, 진단학회)

- 나경수 : 1995, 「탈해신화와 서연왕신화의 비교연구」『한국민속학(27)』 (서울, 민속학회)
- 박현수 : 1993, 「일제의 조선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임장혁 : 1991, 「대곡리 암벽조각화의 민속학적 고찰」『한국민속학(24)』 (서울, 민속학회)
- 임세권 : 1994, 「한국선사시대 암각화의 연구」 (서울,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장명수 : 1996, 「한국암각화의 편년」『한국의 암각화』 (서울, 한길사)
- 조동일 : 1982, 『한국문학통사(1)』 (서울, 지식산업사)
- 천관우 편 : 1975, 『한국상고사의 쟁점』 (서울, 일조각)
- 천관우 : 1976, 「삼한의 국가형성(상)」『한국학보(2)』 (서울, 일지사)
- 최길성 : 1978, 『한국무속의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최남선 편 : 1946, 『삼국유사』 (서울, 삼중당)
- 한글학회 : 1992, 『우리말 큰사전(둘째권)』 (서울, 어문각)
- 황용훈 : 1987, 『돌북아시아의 암각화』 (서울, 민음사)
- 홍만중, 이민수 역 : 1971, 『순오지』 (서울, 을유문화사)
- 孫進已, 임동석 역 : 1992, 『동북민족원류』 (서울, 동문선)
- Nioradze. G, 이흥직 역 : 1976, 『시베리아 제종족의 원시종교』 (서울, 신구문화사)
- 加藤九祚 : 1986, 『北東アジア民族學史の研究』 (東京, 恒文社)
- 姜東鐵 : 1979,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東京, 東京大出版會)
- 大林太良 : 「古代日本・朝鮮三王の構造」『比較神話學の現在』 (東京, 朝日出版社)
- 木村秀雄 : 1974, 『鯨の生態』 (東京, 共立出版)
- 三品彰英 : 1971, 『神話と文化史』 (東京, 平凡社)
- 三品彰英 : 1972, 『日鮮神話傳説の研究』 (東京, 平凡社)
- 三品彰英 : 1973, 『三國遺事考證(上)』 (東京, 書房)
- Mihaly. H, 村井 翊 譯 : 1998, 『シャーマニズムの世界』 (東京, 青土社)
- Michael J : 1993, 『Myths of the World』 (Kyle Cathie Ltd, London)
- Raglan. L : 1965, 「The Hero of Tradition」『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Hall Inc, New Jersey)